

신입생 환영회

속알읽기 원고
1994년 4월 19일

경제학과 조교수 이창용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요즘은 이 곳과 미국의 생활을 자주 비교하게 된다. 비교해 보았던 문제로 언뜻 생각나는 것만 나열해 보아도 교통질서의식, 음주문화 (특히 강요성 노래 부르기), 성차별, 선배 교수님들과의 관계, 학생들이 교수를 대하는 태도, 조교 문화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비교 뒤에는 내 나름대로 장단점을 평가하게 되는데 우리 것이 좋은 것은 당연히 여겨서 그런지 대부분 우리 것에 비판적이었기에, 그새 "미국 자본주의에 세뇌"가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닌 가 염려하고 있다. 그 중 우리 경제학과에 관련된 한 일화를 이야기해보자.

지난번 경제학과 대학원 신입생 환영회 때의 일이다. 그날 나는 "아 미국과 참 다르구나"하는 두 가지 일을 보았다. 첫째 일은 학과장 선생님의 축사가 끝난 뒤 행사진행에 관한 조교의 말이다 --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교수님들은 이미 잘 아실 테니까 교수님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각자 돌아가며 자기 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모든 학생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다는 가정 없이는 있을 수 없는 행사진행 발언이다. 다행히도(?) 신입생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본교 본과 출신이었으므로 사후적으로는 시간절약을 이룬 효율적(!) 진행이었다. 아마도 타고 출신 2명은 "서울대학교 프리미엄"이 어떤가를 처음으로 보면서 늦게나마 이 집단에 속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느꼈을 것이다. 땅덩어리가 넓어서인지, 일류이류 가르치는 입학시험이 없어서인지 미국 대학원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동질성"이다. 하긴 나도 대학원에 한국 유학생이 들어오면 당연히 서울대 출신이거나 생각하고 학번부터 물어보아 비서울대 출신을 당황하게 했던 경험이 종종 있었던 것 같다. 여하튼 타고 출신 학생이 떠들거리며 "저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라고 자기 소개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지연, 학연 등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우리사회의 폐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보는 듯하여 씩씩하였다.

또 하나 다른 점은 학생들의 전공분야 소개였다. "미시 경제학을 하겠습니다." "공황이론을 하겠습니다." "화폐금융론에 관심이 있는데요... 분야는 다르지만 하나같이 앞으로 자신이 연구할 "과목"을 밝히는 신입생들을 보고 대학원 동기 Gilbert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에 Peace Corps로 왔

던 경험도 있던 이 친구가 신입생 환영회에서 한 말이다 -- "나는 연금보험 회사에서 몇 년간 일해왔는데, 사회보장을 통한 연금제도가 사적 연금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서로 경쟁적인지 궁금하게 생각되어 공부하러 왔습니다." 당시 나는 pension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때라 다과회 자리에서 떠들거리는 영어로 내가 하려는 공부가 어느 "과목"에 해당 하냐고 물어보았고 이 친구 대답은 "재정학이라 생각되지만 여러 과목을 들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후 Gilbert와는 같은 기숙사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학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곧장 회사에 취직한 친구라 수학 (지금 생각하면 "산수") 실력이 모자라 1년간 연습문제를 푸는데 내가 알랑한 솜씨로 도움을 많이 주었던 것 같다. 그후 전공이 갈리면서 한 2년간 접촉이 없었다가 졸업논문 발표를 한다는 공고를 보고, 속으로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동료가 3년만에 졸업을 한다는 질투심에 seminar에 가보았다. Feldstein이라는 거물급 경제학자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와 Private Pension의 관계에 대해 새 모형을 발표하는 자료였다. 그 분야의 석학인 Feldstein이 칭찬한 논문의 idea 뿐만 아니라, 그날 나를 놀랜 것은 논문에 사용된 수학의 수준이었다. 소위 수리경제학자들만이 쓸만한 high tech이 가득한 증명을 보면서 지도교수가 썼나하는 질투심 섞인 마음에 Gilbert에게 언제 그렇게 수학 실력이 늘었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Gilbert의 대답은 연금제도에 관해 공부하다보니 미시의 uncertainty 문헌을 많이 접하게 되어 필요에 따라 수학과에서 한 두 학기 보내면서 공부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예의(?)도 바르게 자기 논문에 사용된 정리(theorem)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수학은 전혀 모르니까 놀라지 말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왜 우리 신입생 중에는 해결하고 싶은 구체적인 경제문제를 가지고 대학원에 온 사람이 없을까? 대학병원에 길게 장사진을 친 환자를 보고 우리의 의료보험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고 싶다는 학생은 왜 없는 것일까? 많은 사람의 원성을 샀던 80년 후반 지가상승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어 대학원에 왔다는 신입생은 왜 없는 걸까? 미시 경제학, 정치 경제학, 거시 경제학, 또 그를 나누어서 Keynesian theory 또는 monetarism을 연구하고 싶다는 우리 학생들의 답변은 입학시험이나 고시 답안지 채우기에 안성마춤인 백과사전적 지식을 암기하다가 생긴 버릇은 아닐까?

Gilbert는 자신이 해결할 문제를 세우고 이를 위한 방법론을 하나하나

찾아간데 반하여 우리 학생들은 방법론을 다 배운 뒤에야 문제를 찾으려는 태도에 젖어있는 듯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논리를 주장하기보다 남의 글을 인용하려고 더 애쓰고, 논문을 쓰려면 일단 survey를 한 뒤에야 펜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시경제학은 수학에 정통한 후에나 넘봐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 유학생들이 대부분 논문자격 시험에서 일 이등을 하다가도 논문을 작성할 때가 되면 방황하는 이유를 신입생 환영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조만간 우리 신입생 환영회에서도 Gilbert처럼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학부시절에 가슴 깊이 믿었던 말이었으나 지금은 전혀 수긍하지 않는 문구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끝내려 한다 -- "모든 사회문제는 우리의 시각부터 정립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과연 그런가? 오히려 문제를 보는 시각이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 과정에서 기존 시각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마땅한 시각이 없다면 새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태도라 생각된다. 우리 학생들도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배우려 돌아다니지 말고 "문제" 자체를 찾으려 다니길 바란다. 또 유명한 석학을 인용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는 학생이 되길 바란다.